

‘나비’ 효과, ‘나의’ 효과

- 350PPM 및 Meatless Monday에 도전하다 -



라운아띠 10기 인도팀
단원 병수, 용덕, 현정, 소현

라운아띠 10기 국내 전체훈련이 막바지에 다다른 2013년 7월 15일, 우리는 지구시민워크숍의 하나인 <‘나비’ 효과, ‘나의’ 효과>에 참여했습니다.

일상적인 일과를 바탕으로 탄소배출량 계산표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나니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인도팀도 어마어마한 탄소배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NGO인턴십 기간 중에 실천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 상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우리팀은 지구에게 끼치는 **나의 효과**
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천합니다!

1. 개인컵(텀블러, 머그컵 등)을 이용한다.
2. 안 쓰는 전기 플러그를 뽑는다.
3. 세수 / 양치할 때 물을 받아 쓴다.
(양치컵을 사용한다.)

Photo 1-1.

▽ 영어 울동&노래배우기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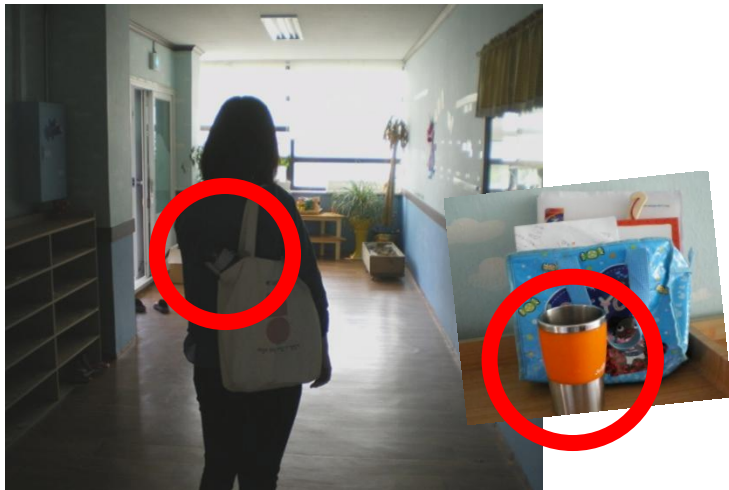


이제는 텀블러 사용에 익숙해진 우리들!

어디를 가든지 텀블러는 '꼭' 챙겨 다녔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텀블러 덕분에 시원한 물 마시면서 잘 보낼 수 있었답니다.

Photo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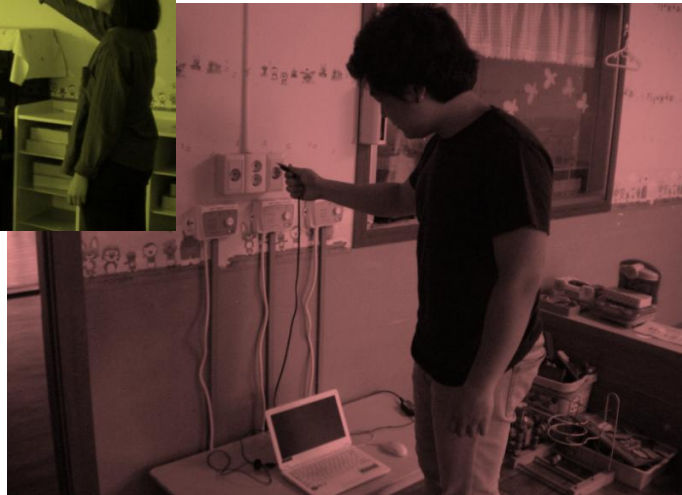
◁ 평화학교모임 中

▷ 아띠 사람책도서관 中

▽ 지역아동센터 활동 등 외부활동 시 챙겨간 텀블러들

Photo 2.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뽑기,
평소에는 잘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
기 쉬운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이 단순한 행동 하나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1. 냉방기 전원끄고 전기 플러그 뽑기
(냉방 온도 26℃ 유지하기)
2. 이석시 컴퓨터/노트북 전원 뽑기
3. 기상 후 모기약(전기훈증기) 뽑기
4. 선풍기 종료 후 전기 플러그 뽑기

Photo 3-1.



양치컵을 구비하지 않았던 우리는 가장 먼저 각자의 양치컵을 구매했습니다. 숙소에서 양치컵을 사용한 양치질을 하면서, 양치컵 사용 전과 사용 후를 비교해보니 우리가 물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세수할 때도 세면대에 물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되도록 그냥 낭비되는 물이 없도록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Photo 3-2.



Photo 4.

‘탄소배출량 상쇄 계획’에는 두지 않았지만
훈련 기간 중 되도록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종의 BONUS입니다 ^^)

사실 인도팀이 지냈던 숙소(구미YMCA 송정
회관)는 5층 이하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
이용이 필수사항이었고, 그밖에 여러 활동이
이뤄진 구미YMCA 구평회관은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3층이라 걸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잊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 청년봉고투어(구미지역 톨아보기) 中
낙동강 구미보 전망대로 올라가는 단원들

이어지는 Meatless Monday!

7월 23일과 7월 29일은 고기 없는 식탁에 동참했습니다. 지역 NGO인턴십 기간 인도팀은 숙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는 반찬은 육류가 들어가지 않지만 주 메뉴는 대부분 육류가 조금씩 들어가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빠지는 메뉴가 있었는데, 바로 구수한 청국장+된장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침, 저녁은 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또한 점심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했는데, 고기반찬은 자율적으로 배제하고 식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 없이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했지만 고기 없이도 (맛 있는 찌개와 반찬 덕인지 모르겠으나) 잘 살 수 있었습니다.

Photo 5.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구와도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현지에서의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